# MUINE

*Heritage*

12

DECEMBER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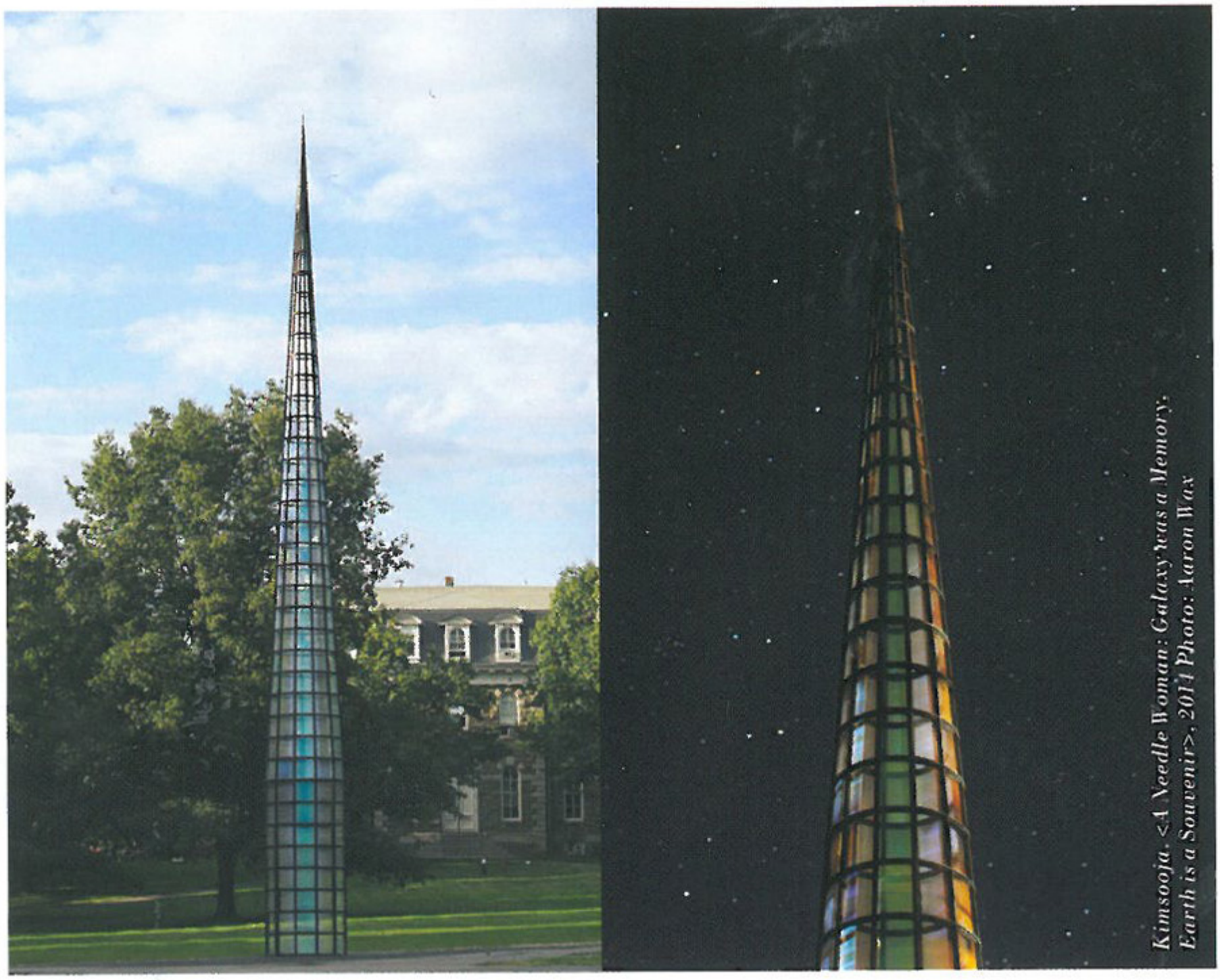
신형철의 정확한 사랑이 한 일

타히티, 또는 잠시__

HEARTFELT GIFT

EXPRESS HOLIDAY

ARABIAN WAVE



*Kimsooja. <A Needle Woman: Galaxy was a Memory, Earth is a Souvenir>, 2014 Photo: Aaron Wax*

## 나노를 김수자에게 묻는다면?

'나노'는 그리스어로 아주 작다는 것을 뜻한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이고, 머리카락 두께의 1/50,000에 해당하는 크기다.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다는 것만 기억하자. 또 나노는 단순히 나노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나노 기술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해당 영역의 과학자마다 대답이 달라진다. 그래서 예술가에게 물었다. 코넬 대학에서 주관한 야외 설치 조각전 '제 1회 CCA 비엔날레'에서 김수자는 고유한 바늘 형상의 파빌리온을 제작했다. 높이 14m, 직경 1.3m인 바늘 모양의 강철 구조는 김수자, 건축가 정재호, 화학자 울리히 와이즈너의 긴밀한 협력으로 탄생했다. 나노 입자 배열 방식을 적용한 파빌리온 표면은 이번 설치의 백미다. 나비의 날개, 딱정벌레 껍데기의 무지갯빛과 유사하다. 붉거나 주황의 혹은 옅은 핑크톤이나 황색, 때로는 녹색이나 보라색을 발현하며 서로 다른 스펙트럼의 색의 파장이 빛과 결합한다. 구조물의 내부 바닥은 거울로 반사, 땅과 하늘 양방향으로 동시 확장되어 서로의 경계가 없다.